

정서행동문제아의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ttachment, Fears and Coping Behaviors*

구미향(Mee-Hyang Koo)¹⁾

ABSTRACT

The present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ttachment, fears and coping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3 school-aged children residing in Seoul, Gwangju and South Jeolla province. The findings indicated tha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negatively correlated to children's attachments to their fathers and peers. The children's attachment to peer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as well as behavioral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used by children in stressful situations. Emotional problems were explained by fears of realistic objects, the seeking out of social support,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and fears of imaginary objects. In addition, behavioral problems were explained by aggressive coping behaviors and child-father attachment.

Key Words : 정서행동문제(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애착(attachment), 두려움(fear), 대처행동(coping behavior).

I. 서 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아동기는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아동의 심신건강은 청년기와 성인기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 본 논문은 2010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¹⁾ 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ee-Hyang Ko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il College, Seoul 131-702, Korea
E-mail : viakoo@hanmail.net

학령기 아동은 과중한 학업과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Kim, 2005). 따라서 청소년기 행동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문제가 만성화되기 전인 아동기에 초점을 두고 정서행동문제의 경향과 원인 및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Chun & Chung,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로 설명된다(Kim & Kim, 1999).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를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분류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 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뜻하며 외현화 행동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한다(Jun & Kim, 2009, 재인용).

아동기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Kim과 Kim(1999)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야기하는 위기요인인 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금까지 가정변인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설명한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Chang, 1997). 즉 아버지의 공격성(Park, 2002),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중 특히 제재-거부적 양육행동(Jun & Kim, 2009), 부모와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Chun & Chung, 2003) 등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특히 아동의 불안정한 애착관계와 정서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애착은 타인과 맺는 애정적 유대로서 아동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한다(Jun & Kim, 2009).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한 정서를 유발하며(Collins & Read, 1990), 또래와의 관계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마찬가지로 또래애착은 또래관계에서 아동이 또래에 대해 형성하는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데(Hong, 2002),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이 아동으로 하여금 거부에 대한 민감성, 불안과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과 달리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촉진한다(Lee, Suh, & Shin, 2000). 이와 같이 또래와의 관계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의 질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탐색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련성 및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면서 동시에 임상적인 주의를 요하는 두려움이라는 정서 또한 아동기 정서행동문제와 관련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발달적 특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의 연구 동향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아동기 정서행동문제와 두려움과의 관련성

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두려움의 요인구조가 유사하고, 5요인 구조가 아동기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Bokhorst et al., 2008; Burnham & Gullone, 1997; Elbedour et al., 1997).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두려움 목록을 분석한 국내연구(Koo & Lee, 2003)에서도 상상적 대상, 폭력·재해관련, 현실적 대상, 상징적 대상,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의 5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아동기 두려움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 내면화 행동문제 중 불안성향이 높은 아동이 비합리적 공포반응이나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보이고, 내면화 장애집단의 아동과 비교하여 외현화 장애집단의 아동에게서 전반적으로 두려움 수준이 낮았다(Koo & Lee, 2003; Kim, 1989). 특히 외현화 행동문제 중 비행성향을 많이 보이는 아동의 폭력·재해관련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oo & Lee,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살펴본 아동기 정서행동문제 관련 변인들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대처전략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개인의 적응력을 예측함에 있어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사회적 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Park & Chung, 2001).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아동의 인지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되며, 대처방식의 차이에 따라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으로 구별된다

(Park, 2001). Choi 등(2010)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양상을 보던 기존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보고(Hong, 2000)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부정적 피드백은 문제중심 대처행동을 취하는 아동에게 위축이나 우울 등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Chun & Chung,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일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특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단일 변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내적 변인, 환경변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변수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위험 집단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oi, Suh, & Kim, 2010). 오늘날 학령기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과정 중에 있는 아동기의 특성상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힘들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도 부족하다(Kim, 2005).

이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두려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 두려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광주·전남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서·행동문제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48명에게 학급에서 6개월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선별하도록 요청하였다. 1차로 선별된 13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72명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정서 및 행동문제아로 판명되었으나, 자료수집 후 일부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63명

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비는 남아가 많았으며(71.4%), 치료교육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19명(30.2%)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아동용문제행동선별검사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Huh 등(2003)이 개발한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의 4점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0점~3점이다. 문제를 가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기준점수(cut-off score)가 3점 이상인 경우 정서문제 집단으로, 기준점수 8점 이상인 경우를 행동문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6$ 이었고, 정서문제의 Cronbach $\alpha = .74$, 행동문제의 Cronbach $\alpha = .84$ 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Variables	Characteristics	<i>M</i> (%)
Gender	Male	45(71.4)
	Female	18(28.6)
Age	8 years	7(11.1)
	9 years	14(22.2)
	10 years	11(17.4)
	11 years	15(23.8)
	12 years	14(22.2)
	13 years	2(3.2)
Birth order	Only child	11(17.4)
	Firstborn	24(38.1)
	Second	26(41.2)
	Third	2(3.2)
Residential area	Seoul	21(33.3)
	Gwangju and South Jeolla Province	42(66.7)
Experience of therapy	Yes	19(30.2)
	No	44(69.8)

2) 애착척도

Hong(2002)이 번안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Res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각 25 문항에 대해 아동으로 하여금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부애착 Cronbach $\alpha = .84$, 모애착 Cronbach $\alpha = .87$, 또래애착 Cronbach $\alpha = .92$ 였다.

3) 아동기 두려움척도

Koo와 Lee(2003)가 개발한 45문항의 4점 Likert 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두려움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였고,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상상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Cronbach $\alpha = .91$, 폭력·재해관련 두려움 Cronbach $\alpha = .92$, 현실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 Cronbach $\alpha = .69$, 상징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 Cronbach $\alpha = .87$,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Cronbach $\alpha = .81$ 이었다.

4)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Chung과 Park(2001)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문항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0$ 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공격적 대처행동 Cronbach $\alpha = .83$, 적극적 대처행동 Cronbach $\alpha = .81$,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Cronbach $\alpha = .7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Cronbach $\alpha = .57$ 이었다.

3. 자료분석

Windows용 SPSS 12.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변인들 간의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애착, 두려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상관

1)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 간의 상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 두려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서문제는 부애착($r = -.25, p < .05$) 및 또래애착($r = -.25, p < .01$)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두려움의 하위요인 중 상상적 대상($r = .32, p < .05$), 현실적 대상($r = .40, p < .001$), 상징적 대상($r = .31, p < .05$)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정서문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일수록 아버지와 또래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는 낮고,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행동문제는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 상상적 두려움($r = -.30, p < .05$), 적극적 대처행동($r = -.35, p < .01$)에 대해 부적상관을 보였고,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유의한 정적상관($r = .56, p < .001$)이 있었다. 즉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일수록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안정성 점수와 상상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하지 못하고,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Pearson's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10	1												
3	-.25*	-.45***	1											
4	.20	-.28*	.45***	1										
5	-.25**	-.29*	.36**	.03	1									
6	.32*	-.30*	.34**	.27*	.04	1								
7	.21	-.08	.26*	.25*	-.07	.75***	1							
8	.40***	-.16	-.01	.11	.11	.53***	.47***	1						
9	.31*	-.15	.25*	.28*	.09	.78***	.78***	.65***	1					
10	.03	.15	-.27*	-.13	-.19	-.13	-.04	.22	-.08	1				
11	-.06	.56***	-.16	-.16	-.32**	-.06	.13	-.03	.05	-.01	1			
12	-.13	-.35**	.65***	.42***	.42***	.30*	.24	.22	.27*	-.11	-.14	1		
13	-.16	-.21	.39**	.38**	.40***	.38**	.36**	.32**	.41***	.06	-.01	.60***	1	
14	-.05	.00	.33**	.17	.03	.11	.21	.28*	.20	.01	.30*	.47***	.29*	1

* $p < .05$. ** $p < .01$. *** $p < .001$.

1. Emotional problem 2. Behavioral problem 3. Father attachment 4. Mother attachment 5. Peer attachment 6. Fear of imaginative objects 7. Fear of violence and disaster 8. Fear of realistic objects 9. fear of symbolic objects 10. Fear of authoritative figures 11. Aggressive coping behavior 12. Active coping behavior 13. Seeking social support 14. Passive · avoidance coping behavior

2)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행동문제($r = -.45, p < .01$) 및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r = -.27, p < .05$)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모애착($r = .45, p < .001$) 및 또래애착($r = .36, p < .01$), 상상적 대상($r = .34, p < .01$)과 상징적 대상($r = .25, p < .05$)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 · 재해 관련 두려움($r = .26, p < .05$)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r = .65, p < .001$), 사회지지 추구행동($r = .39, p < .01$), 소극 · 회피적 대처행동($r = .33,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는 아동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와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어머니와 또래와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 애착이 높은 아동은 상상적 대상과

상징적 대상, 폭력 · 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며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행동문제와 부적상관($r = -.28, p < .05$)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r = .45, p < .01$)과 두려움의 하위 요인 중 상상적 대상($r = .27, p < .05$), 폭력 · 재해($r = .25, p < .05$), 상징적 대상($r = .28, p < .05$)에 대해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r = .42, p < .001$)과 사회적 지지추구($r = .38, p < .01$)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고 아버지와 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높다. 또한 모애착 점수가 높은 아동은 상상적이거나 상징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 · 재해 관련 두려움이 많고,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또래와의 애착과 정적상관을 보인 변인은 부애착($r = .36, p < .01$), 적극적 대처($r = .42, p < .001$),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r = .40, p < .001$)이었다. 반면 부적상관을 보인 변인은 정서문제($r = -.25, p < .05$)와 행동문제($r = -.29, p < .05$), 그리고 공격적 대처행동($r = -.32, p < .01$)이었다. 즉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일수록 아버지와의 애착안정성 점수도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며, 정서행동문제를 보이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 두려움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

두려움의 하위요인 중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타 변인과의 관계에서 상상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문제($r = .32, p < .05$), 부애착($r = .34, p < .01$), 모애착($r = .27, p < .05$)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행동문제는 외는 부적상관($r = -.30, p < .05$)을 보였다.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쉽게 접할 수 없는 대상인 상상적 대상을 두려워하는 아동일수록 정서문제 수준이 높고,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았다. 폭력·재해 관련 두려움은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지지추구 행동($r = .36,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폭력이나 상해,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한 두려움이 많은 아동일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나 동물에 대한 두려움인 현실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문제($r = .40, p$

$< .01$), 사회적 지지추구($r = .32, p < .0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r = .28, p < .05$)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현실적 대상을 두려워하는 아동일수록 정서문제를 많이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였다.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상징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문제($r = .31, p < .05$), 모애착($r = .28, p < .05$), 적극적 대처($r = .27, p < .05$), 사회적 지지 추구행동($r = .41, p < .001$)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상징적 대상을 두려워하는 아동일수록 정서문제의 수준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주변의 권위 있는 인물을 의미하는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유일하게 부적상관을 보인 변인은 부애착($r = -.27, p < .0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권위적 대상을 두려워하는 아동일수록 아버지와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낮음을 말해준다.

4)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 중 공격적 대처행동은 행동문제와 정적상관($r = .56, p < .01$)을 또래애착($r = -.32, p < .05$)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동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높고, 또래와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낮았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행동문제와 부적상관($r = -.35, p < .01$)을 보였으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상상적 대상($r = -.30, p < .05$)과 상징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r = .27, p < .05$)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아동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의 수준은 낮고 부모나 또래와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높은 것

<Table 3>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2	β	F
Emotional problem	Fear of realistic objects	.16	.30*	9.56***
	Seeking social support	.25	-.38**	
	Attachment to mother	.33	.39***	
	Attachment to father	.39	-.38**	
	Fear of imaginative object	.46	.32**	
Behavioral problem	Aggressive coping behavior	.32	.50***	24.14***
	Attachment to father	.45	-.37***	

* $p < .05$. ** $p < .01$. *** $p < .001$.

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추구행동은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두려움의 하위요인 중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아동일수록 부모나 또래와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고 전반적인 두려움의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r = .33, p < .01$)과 현실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r = .28, p < .05$)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취하는 아동일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와 현실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았다.

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관련된 변인들의 설명력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서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현실적 두려움($\beta = .30, p < .05$), 사회적 지지추구행동($\beta = -.38, p < .01$), 아버지($\beta = -.38, p < .01$)와 어머니의 애착안정성($\beta = .39, p$

$< .001$)이었고, 이들 변인에 의한 총 설명력은 46%였다. 즉 현실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인 지지를 추구하지 않으며, 어머니와는 안정적인 애착을 보이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이 내면화된 정서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문제는 공격적 대처($\beta = .32, p < .001$)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beta = -.37, p < .001$)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총 45%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보이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이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서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일수록 아버지나 또래와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의 애착은 아동의 정서문제와 행동문제 모두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아버지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일수록 내면화된 정서문제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나 또래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갖는 아동이 사회적 불안수준이 높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Kang(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Song과 Jang(2001)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개선을 위해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정서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아버지와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정서문제와 행동문제 모두와 관련성을 갖는 것과 달리 어머니와 밀착된 애착관계가 자녀의 정서문제만을 설명한다는 사실은 특이한 점이다. 비록 본 연구대상과 발달단계상의 차이는 있지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Cho(20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애착안정성이 높은 영아가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안의 근본적인 원형을 버림받음(abandonment)으로 설명한 Breger(1974)에 의하면 유아가 경험하는 생애 초기 어머니와의 격리불안은 모자관계를 밀접히 유지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불안의 원천이 된다.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실제적 상실에 대한 불안은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상징화

되고 내재화되어 사회화된 불안의 양상을 띤다. 이러한 관점은 과도하게 밀착된 모자관계와 정서문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는 애착안정성의 병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자애착과 아동의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애착수준의 병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특히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Kim, 2009; Lee et al., 2000; Jang & Yun,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안정 애착된 아동의 또래 애착안정성이 높았던 것과 달리 어머니와의 애착은 또래애착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애착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Kim(2009)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는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아버지 애착의 관련성만을 입증하였다. Jang과 Yun(2008)은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 애착이 아닌 아버지 애착임을 밝히면서 현재 어머니 위주의 애착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부모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아동이 부모와 맺는 애착관계의 질을 심도 깊게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또래와의 애착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공격적인

대처방식이 또래 애착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적극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행동은 또래 애착안정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는 방식은 그에 따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 유발상황을 자신을 위협하는 적대적 상황으로 인지하며 폭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odge & Coie, 1987; Olweus, 1994). 따라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위한 인지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또래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이 사용하는 문제 중심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Hong, 2000),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아동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래애착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정서행동문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을 알아본 결과, 정서문제의 경우 상상적 대상, 현실적 대상, 상징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 위축이나 우울, 불안 증상을 보이는 내면화 행동문제가 있는 정상아에 비해 공포대상이 많고 비합리적인 공포를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Kim, 1989), 외현화 행동장애아에 비해 전반적인 두려움 수준이 높고 현실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Koo & Lee, 2003). 두려움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만을 탐색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는데, 현실적 대상과 상상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문제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권위적 인물은 부모와 교사를 의미하며, 아버지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가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전통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이 되는데(Elbedour et al., 1997),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 비교하여 가족 간의 결속과 부모에 대한 존경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부자관계는 정서적 애착으로 대변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통제와 복종, 정서적 거리감을 특징으로 한다(Chun, 1998 재인용). 가족 내 결속을 강화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Chun, 1998),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자간의 소원한 애착관계와 두려움 간의 관계를 병리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대처행동의 경우,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은 적게 보이고 대신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적인 대처행동은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이었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을 입증한 Park(2001)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받는 공격적인 대처행동이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제재로 인한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비행이나 폭력으로 분출시킴으로써 외현화 행동문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행동문제 등 부적응상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

스 대처능력과 같은 아동이 내적인 힘을 증진시키는 교육 및 상담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Lee & Han, 2006).

사회적 지지 추구행동은 정서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사회적 지지추구행동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Kim & Lee, 2008; Cohen & Wills, 1985; Windle & Windle, 1996).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의 정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이 활용 가능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와 또래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동일시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행동방식으로 설명된다. 즉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험이 선행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추구행동을 강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Park, 2001; Jun & Kim, 2009).

아동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권위적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지지추구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두려움은 생리적 반응을 포함한 인지적,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되는데,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은 아동에게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수반한다

(Park, 2001).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한 아동의 대처전략을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다. Amirkhan와 Auyeung(2007)은 다양한 연령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대처전략을 비교한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회피전략은 감소하고 문제 지향적인 대처전략은 증가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대처 전략이 사회적 지지추구 행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두려움과 대처전략 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대처 전략의 차이와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정신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아동의 성차나 임상적 경험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아동기 정서행동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장애요인을 밝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연구법에 의해 임상집단과 일반아동의 특성을 비교하고, 정서행동문제를 경감시키거나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u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1).
- Amirkhan, J., & Auyeung, B. (2007). Coping with stress across the lifespan : Absoulte vs. relative change in strateg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98-317.
- Bokhorst, C. L., Westenberg, P. M., Eosterlaan, J., & Heyne, D. A. (2008). Changes in social fears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135-142.
- Breger, L. (1974). From instinct to identity :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entice-Hall, Inc.
- Burnham, J. J., & Gullone. E. (1997). The fear survey schedule for children II.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2), 165-173.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 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ho, M. S. (2008). The toddlers' attachment stability and social emotionality to their mothers and teachers. Master thesis, Inha University. Korea.
- Choi, L, Y., Suh, J. H., & Kim, J. K. (2010). A trends analysis of research on children's daily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2), 97-110.
- Chun, H. Y. (1998). Is authoritative parenting the best for children's social adjustment? Reconsideration based on western and asian cultures,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8), 21-37.
- Chun, Y. J., & Chung, M. J. (2003). Effects of three-generation family experiences and coping behaviors of Korean children on their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8), 139-158.
- Chung, M. J., & Park, J. A. (2001). Relationships between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and behavior problems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y*, 22(3), 107-122.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lay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Elbedour, S., Shulman, S., & Kedem, P. (1997). Children's fears : Cultur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6), 735-750.
- Hong, Y. R. (2000). Stressor, coping style, communication with mother & school adaptation in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6(3), 362-371.
- Hong, J. Y. (2002). The rela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ttachment to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uh, Y. S., Ahn, D. H., Choi, J. H., Kang, J. Y., Kim, Y. Y., & Oh, K. J. (2003). Development of a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Test.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2 (6), 724-735.
- Jang, J. B., & Yun, M. H. (2008). The effect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 quality of friendship.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9(4), 685-695.
- Jun, J, R., & Kim, S. Y. (2009). The effects of maternal negative behaviors and children's attachment stability on children's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173-189.
- Kang, G, Y. (2003).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on the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oo, M. H., & Lee, Y.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fears and behavioral problems.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16*(1), 341-363.
- Koo, M. H. (2009). Analysis of the fear inventory by preschoolers' sex, age, and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y, 30*(3), 55-69.
- Kim, K. W. (1989). The comparative study on fearful object of emotionally normal and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Y. (2005). Study of stress,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in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1*(1), 83-89.
- Kim, B. O., & Lee, J. S. (2008). Relationships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from low-income and middle-income famil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6), 1051-1063.
- Kim, S. H., & Kim, K. Y. (1999). The causal relationship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1), 155-166.
- Kim, H. J. (2009). The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to mother, attachment to father, and social competence in late-school aged children.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S., Suh, S. J., & Shin, Y. J. (2000).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parents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peer relation in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1*(1), 51-59.
- Lee, J. S., & Han, J. H.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6), 951-959.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 J. A. (2001). Relationship between coping with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behavior problem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2002). Fathering, sons' aggression, and the transmission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y, 23*(5), 35-50.
- Song, Y. H., & Jang, K. Y. (2001). The effects of change of parent-child relation on behaviors of children with maladjustment behaviors and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5*(1), 113-129.
- Windle, M., & Windle, R. C. (1996). Coping strategies, drinking motives,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middle adolescents :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with academic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51-560.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2월 8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